정국은 머쓱한 듯 다시 정리를 시작한다. 사진과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다.

정국: (사진을 보며) 둘이 잘 지냈나 보네~

지민은 정국에게 손을 뻗는다.

정국: (장난스럽게) 너 이거 쓸 줄은 알고 가져가는 거야? 버려 그냥~
지민: (사진과 카세트 테이프를 뺏으며) 저 주세요. 알아서 할게요.
정국: 장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냐~ 아빠 삘쭘해지게.
지민: 장난 칠 기분 아니에요. 주세요 그냥.
정국: 넌 아빠 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... 컸다고 엄청 대드네.

지민은 화를 참으며 계속 방 안만 정리한다.

정국: (방 안을 뒤지며) 그 미안한데... 엄마가 통장 모아놓는 가방 같은 거 못 봤어?

지민이 계속 대답이 없자 정국이 지민을 툭툭 친다.

정국: (인아를 툴툭 치며) ... 지민아? 통장을 어디 모아 놓은게 있을거야~ 그거 못 봤어?
지민: (참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며) 지금 할 말이 고작 그거야?

지민은 몰래 숨겨뒀던 통장과 문서를 정국 앞으로 던지고 방 밖으로 나간다. 정국은 나가는 지민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한다.